

표준 물류기기 보급 확대로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 회원사 권익보호 주력



김 정 식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회장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지난 3월 28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김정식 (주)코리아코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40년간 물류업계에 종사하며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 온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김정식 신임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보았다.

“40년간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평생을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장직을 마지막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협회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계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류산업 발전의 주축들을 이루고 떠나고 싶다는 김 회장은 “물류업계에 종사하면서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내 물류산업 발전과 함께 해온 김 회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ROTC 초급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1967년 대한통운에 입사하여 30년간 근무하면서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경험을 두루 쌓는 등 회사에선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였다.

대한통운 퇴직 후 1998년 (주)코리아코프를 창업한 그는 INNO-BIZ(기술혁신기업) 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써 물류기술을 통해 물류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물류기술 개발을 통한 고객만족 물류서비스 제공과 국내 물류산업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 공로가 인정받아 지난 3월 25일 한국로지스틱스학회(회장 진형인) 주관으로 개최된 제5회 한국로지스틱스 대상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기술개발만이 회사 발전에 지름길을 인식하고 국가공인 KC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여 각고의 노력과 꾸준한 개발, 연구 끝에 현재 국내외 특허등록 150건 달성해 성공했다. 또한 세계화로 거듭나기 위해 1998년 ISO 9001 품질인증, 2000년 QS 9000 품질시스템인증, 2001년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INNO-BIZ 사업에서 Aa라는 최상의 등급을 받아 물류기기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코리아코프 경영을 통해 40여년간 경험해 온 자신의 철학과 이념을 담아내고 있는 김 회장 으로서는 협회를 이끌어 나갈 임기기간동안의 각오도 남다를 터.

헌신을 다해 회원사들에게 봉사하고 싶다는 김 회장은 “표준 물류기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표준 물류기기 보급 확대를 통한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류표준인증제도산업화에 적극 참여하여 물류품질인증마크 활성화를 위해 산자부 및 건교부와 협력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표준인 T-11형(1,100×1,100) 파렛트의 국내 보급 및 홍보와 한·중·일 유니트로드시스템 확대 등 국내 뿐 아니라 국제 물류표준화에도 일익을 담당

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친화적 물류기기인 컨테이너 보급확대를 위해 컨테이너 생산, 보급, 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실질적인 통계자료를 만들어냄으로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협회는 환경부의 플라스틱 제품 환경물부담금 확대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부에 플라스틱 물류기기가 반영구적으로 회수,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타용도의 플라스틱 제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환경물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가 어려울 경우 플라스틱 물류기기를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플라스틱 물류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협회 내부에 플라스틱 분과위원회를 결성, 대정부 건의활동 등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렛트·컨테이너는 군인의 총과 같은 물류의 기본으로 물류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강조하는 김 회장은 인터뷰 내내 ‘하늘에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평생 물류산업에 자신의 청춘과 열정을 쏟아 부으며 현재의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항상 주위를 돌아보며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김정식 회장. 현재 그의 물류인생은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이자 시작이다. 

이한얼 기자